

“양현종 선발 나갈 자격 있다”



▲ 양현종. 사진=유튜브(흰수염고래스포츠) 캡처

텍사스 레인저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양현종을 계속 선발로 기용할 뜻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우드워드 감독은 전날 화상 인터뷰를 통해 “양현종이 지금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자리’라는 것은 선발 로테이션을 의미한다. 일단 다음 등판도 선발로 나갈 것을 예고한 셈이다.

양현종은 19일 손가락 굳은살 문제로 이탈한 아리하라 고헤이를 대신해 뉴욕 양키스전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동안 3안타 2탈삼진 4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다.

이날 양현종은 좋은 투구 내용을 선보였지만 상대 선발 투수인 코리 클루버가 이날 생애 첫 ‘노히트 노런’을 기록, 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패전의 명을 짊어져야 했다.

개막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한 양현종은 포기하지 않고 버틴 끝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고, 양키스전을 포함해 두 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 가고 있다.

첫 선발 등판이었던 5월 5일 미네소타 전에서는 3⅓이닝 8탈삼진 1실점을 기

록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드워드 감독은 아리하라의 복귀 시점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양현종이 선발로 던질 만큼 인상적인 활약을 보임에 따라 양현종을 선발로 기용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 감독은 “다른 옵션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양현종이 잘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 (선발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 어제도 좋았다. 투구수를 더 많이 끌어올려 전통적인 선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테이션대로라면 양현종은 25일 LA 에인절스 원정길에 등판할 전망이다. 양현종의 MLB 데뷔전 상대가 바로 에인절스. 4월 27일 홈에서 등판한 양현종은 4-7로 뒤진 3회초 2사 2·3루 위기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해 7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는 등 4.1이닝 5피안타(1피홈런) 2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이 활약은 양현종이 메이저리거로 자리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당시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양현종이 던진 4⅓이닝은 텍사스 구단 역사에서 두 번째로 긴 구원 등판이었다고 설명했다. 1988년 9월 17일 스티브 윌슨이 에인절스를 상대로 던진 5⅓이닝이 구단 역대 최장 구원 투구 기록이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두 번째 자유계약 선수(FA) 신분을 얻은 양현종은 한국 프로야구 KIA에 남으면 더 높은 연봉과 에이스 예우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MLB 도전이라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 MLB닷컴에 따르면 올해 양현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메이저리그 진입 시 연봉과 옵션을 합쳐 약 185만 달러이다. 양현종은 2016년 말 FA가 돼 KIA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연속 23억 원의 연봉(인센티브 별도)을 받았다.

‘79전 80기’, PGA투어 정상 오른 이경훈



▲ 이경훈이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사진=유튜브(골프리포트) 캡처

PGA투어 정상을 꿈꾸며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이경훈이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경훈은 전날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끝난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은 한국에서 잘나가는 골퍼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한국 최고 권위 대회인 한국오픈을 2연패했고, 2015년엔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상금왕에도 올랐다. 2012년과 2015년 일본남자프로골프 투어(JGTO)에서도 1승씩 따냈다. 안전하고 보장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경훈은 2016년 편안한 길을 버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겨뤄보고 싶다.”면서 PGA 2부 투어로 진출한 것이다.

아심찬 도전이었지만 PGA 투어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콘 페리 투어(PGA 투어에 입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2부 투어 격 무대, 임성재도 이 투어를 거쳐 PGA에 진출함-편집자주)에서 3년을 뛰어야 했다. 이경훈은 2018년 콘 페리 투어에서 상금 5위에 오르며 PGA 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PGA 투어의 벽은 높았다. 첫 시즌엔 3위 한 번 포함해 톱25에 든 게 5번에 불과했다. 대신 13번이나 컷탈락했다. 2019~2020시즌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컷통과 13번, 컷탈락 12번으로 우승은 너무 높은 산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력이 부쩍 좋아

졌다. 지난 2월 피닉스오픈에서 4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치며 공동 2위에 오르더니 지난 16일 끝난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에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2018~2019시즌부터 피지에 이 투어 1부에 진입한 뒤 80번째 대회만이었다.

이날 우승으로 이경훈은 2022~2023 시즌까지 투어에서 뛴 자격을 확보했다.

이경훈은 우승 후 “최근 몇 달 사이에 퍼트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캘러웨이의 일자형 퍼터로 바꾼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훈은 또 “오늘 경기하기 힘든 조건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했다. 우승을 확정하기 전에는 여러 상상도 했지만 막상 우승하고 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며 “응원해준 많은 팬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경훈의 진짜 강점은 멘탈이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랭킹 1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타고난 긍정 마인드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장착한 이경훈이 PGA 투어에서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